

담배라는 제품의 아이러니



“우리가 지금 금연운동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을 돌아보고, 건강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흡연 문제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 Dr. Gro Harlem Brundtland,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1998-2003)

담배의 특징

담배는 이윤이 많이 남는 독특한 상품이다. 담배 연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400여종의 독성물질, 4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암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전신에 피해를 준다. 예방 가능한 가장 심각한 건강요인이라고 불리는 담배 제품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 질병 원인이 되는 술이나 다른 건강 위험요인들(콜레스테롤 등)처럼 과용이나 남용하지 않고 조금만 흡입해도 위험하다. 하루 한 개피를 피우는 것도 건강에 매우 해롭다. 둘째, 중독성이 매우 높다. 담배 속에 포함된 중독 성분인 니코틴은 헤로인과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뇌에 작용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습관성이 되는 비율(1회 사용자가 만성 중독이 되는 비율)은 마약이 30% 정도이지만 담배는 50%나 될 정도로 높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인체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상품이지만 담배회사는 지속적으로 담배를 광고한다. 넷째,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연기에 노출된 주위 사람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

이 글을 쓴 **김대현** 교수는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한결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이러한 특징들은 금연을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금연에 대하여 보건 의료인과 교육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 운동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담배의 특징 때문이다.

담배의 피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생존자 중 5억 명 정도가 담배로 사망할 것이며, 이들 중 2억 5천만 명은 중년기에 조기 사망하게 된다. 담배는 선진국 성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년 남자 사망의 1/3, 노인 사망의 1/5이 담배 때문이다. 현재의 젊은 흡연자가 중년이나 노인이 되는 2030년경에는 담배로 인해 매년 1,000만 명이 죽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진국 남성 사망의 24%, 여성 사망의 7%(계속 증가 추세)가 담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의 40% 이상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흡연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단축은 8년이며, 중년(35~69세)에 사망하는 사람은 22년이 단축된다.

흡연자의 중년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3배나 높다. 모든 흡연자의 절반 정도가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다. 담배를 끊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중년이라도 금연한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난다.

조기사망(연간 4백만)의 주요 원인인 담배, 우리가 담배를 끊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담배로 사망하는 1,000만 명의 절반인 5백만명이 담배 때문에 조기 사망하게 될 것이다. †